

2006년도현장연구조사최종발표회개최

축산물등급판정소는 10월 25일에 현장연구조사 최종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발표회는 외부심사위원으로 충북대학교 최양일 교수, 농진청 축산연구소 안종남 과장, 내부심사위원 사업본부장 윤영택 외 9명이 공동석의 4인(사업개발팀)의 한우와 수입소에서 등급을 인정한 유선품종 조사" 등 16개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심사결과로는 최우수상으로 대구경북지소(도축시설 및 작업방법 개선 전·후의 근육열 발생 현황조사, 김병도외2인), 우수상으로 서울지소(소도체의 육색과 지방색에 대한 색도 조사, 오시창외4인)과 제주지소(돼지 등급판정시 나무리 등급하향에 대한 고찰, 임상철외2인)가 선정되었다.



『축산물등급판정검사기계개발을위한양해각서(MOU)』체결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김경남)와 농진청 농업공학연구소(소장 윤진하)는 11월 9일 농업공학연구소에서 『축산물 등급판정 검사기계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축산물등급판정의 기계화 및 과학화를 위한 등급판정 기술력을 향상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MOU 체결은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평가 방법의 기계화 및 과학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에 양 기관이 공동으로 협력함으로써 축산물등급판정의 객관성 제고를 통한 축산물의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와 가치를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산물등급판정기술 R&D에 관한 협약서』체결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김경남)와 농진청농정 축산연구소(소장 윤상기)는 10월 30일 축산연구소에서 『축산물등급판정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서 체결로 축산물등급판정소는 등급판정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판정기술개발을 위한 부족한 연구인력과 예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축산물등급판정소의 풍부한 현장경험, 판정데이터와 축산연구소의 수준 높은 연구개발 능력이 접목함으로써 등급판정 기술이 크게 향상이 되어 국

내산 축산물의 품질향상, 유통개선, 가격개량 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6 우수혁신사례발표대회개최

축산물등급판정소는 닭·지소별로 선정한 자율혁신과제 51건에 대하여 우수사례발표대회를 10월 31일 분사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지난 3월 51건의 자율혁신과제를 선정하였으며 6월 혁신추진계획발표회를 통해 혁신과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한 우수혁신사례를 이날 발표하게 되었다. 사례원고를 통한 서류심사 35건과 발표대의 16건을 심사한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최종순위를 결정하였으며 금상은 서울지소 "소도체 결합종류별 포도겔리 반간"의 2과제, 은상 규격개발팀, 동상 정보지원팀, 전북지소 2곳이 선정되어 12월 혁신나눔대회시 시상할 예정이다.

이번대회를 통해 김경남 소장은 "05년에 비해 우월한 기리기 힘든 우수한 과제수행을 치하 하면서도 혁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과제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